



1 처음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새가족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도학교 오리엔테이션
6. 14(토) 오후 2시 본당
등록비 2만원/3333333610820 카카오뱅크 (조정순)

3 양육자 훈련
6.14(토) 오전 9시 본당

4 제 8기 제자훈련 수료식
6. 15(주일) 2부 예배 본당
[수료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원 성도, 객선영 집사, 김현숙 집사, 문수진 집사,
박현희 권사, 박현주 성도, 서혜란 성도, 안명상 집사,
이명순 집사, 이정일 집사, 이하늬 성도, 이향신 집사,
이현정 성도, 전지훈 집사, 조성화 집사

5 하절기 예배 복장
예배시 노타이(No Tie) 차림을 합니다.

6 교역자 휴가
김경현 목사 6. 9(월) - 14(토)

새가족 등록 절차

- 1 새가족실(B1)에서 신청서 작성
- 2 일대일 양육
- 3 속회(소그룹) 배정
- 4 양육수료후 등록교인이 됩니다

임마누엘교회 새가족국

02.3411.1918

예 배 안 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9시 11시	본당
유아유치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청소년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청년부	주일	오후 1시	본당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시30분	본당
수요예배		오전 10시30분	본당
금요말씀기도회		오후 8시	본당
속회예배	목-토		

오 시 는 길



[외부 주차장 이용]

모빌리티 주차장 강남구 밤고개로24길 61

섬기는 교회 | 선교사

해외 강남진 임명호선교사 잠비아
이준 위문선교사 태국
류승현 황윤주 선교사 르완다

국내 영파교회 교병선목사
익산벨렐교회 마준철목사
예교회 박정현목사
엘리사교회(군선교) 최이용목사
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
극동방송
행복한선교회
성남의료원 교회 정명희 목사
서울삼성병원 교회 김정숙 목사

담임목사 김영광
부목사 김경현 유한나
전도사 염민아
원로목사 임규호
원로장로 김현식 박양수
시무장로 전병희 마승초 주진범 주창호

임마누엘교회
성도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경배와찬양	다함께	
*찬양	나를 통하여	다함께
*예배로의부름	김영광 목사	
*신앙고백	다함께	
대표기도	1부 곽옥숙 권사	2부 전병희 장로
성경	창세기 16:1-16[새번역]	
설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김영광 목사
*봉헌과결단	예수 나의 치료자	다함께
*축도	김영광 목사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일 대표 기도

6/15 1부 권영희 권사
2부 마승초 장로

6/22 1부 김문숙 권사
2부 주진범장로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30

민수기

김영광 목사
유한나 목사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예배] 오전 10:30

[수요전도] 오후 1:00

[목요전도] 오후 6:00

[금요말씀기도회] 오후 8:00

[속회예배] 목-토

교회, 나의 기도원

화 ~ 토 오전 9시-오후 6시

성전기도시간 본당에서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정 예 배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주일 저녁에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 1)찬양으로 예배 시작(QR코드)
- 2)성령의 조명을 위한 시작기도
- 3)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말씀읽기
- 4)인도자의 말씀 선포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명씩 나누고 기도
- 5)마침기도

찬양_오 신실 하신 주
말씀_창세기 16장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지 10년, 그의 나이는 어느덧 85세가 되었습니다. 그 때까지 아브람과 사래 사이에는 여전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여인에게 이 일은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사래는 주변의 시선, 자신에 대한 낙심,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현실 사이에서 깊은 내면의 혼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래는 결국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어 자녀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사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창16:2)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 같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신 것처럼 여긴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백과 행동 사이의 간극입니다. 사래가 자녀를 주시는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래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버립니다.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준 것이지요.

아브람 역시 중요한 상황에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아내의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2절). 이 때 사용된 히브리어 ‘שמע’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닌, 동의하고 따랐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섰던 아브람이 이제는 사람의 판단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예배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입술로는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도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버거우면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브람과 사래는 결국 하갈을 아브람과 동침하게 합니다. 이 후 하갈은 아브람의 아이를 잉태한 후,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사래의 학대를 받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두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한 여인과 아이를 광야로 내몬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자녀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하갈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브엘라헤로이)”

광야에서 들려온 이 고백은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깊고 낮은 곳까지 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나누어 보세요.

- 1)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의심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찾은 경험이 있나요?
- 2) 힘들고 지치는 광야 같은 상황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온라인 헌금 안내

농협 355-0074-8968-63

(예금주 : 임마누엘교회)

*송금시 '이름+헌금종류' 기재

예시) 십 일 조-김바울~~십~~ / 감사헌금-김바울~~십~~

주일헌금-김바울~~주~~ / 선교헌금-김바울~~선~~

일천번제-김바울~~일~~ / 건축헌금-김바울~~건~~